

전주시, '전국 최초' 동물복지과 신설

시, 조직 개편 통해... 반려견 놀이터 건립·길고양이 표준매뉴얼 구축 등 추진 가능성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친화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할 '동물복지과'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조직에서 5개 과와 15개 팀이 늘어난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가 시정목표인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과 동물복지, 돌봄 기능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반려동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

하면서 동물유기와 학대도 동시에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전주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동물복지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주형 동물복지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전시동물 △시민참여 등 5개 분야의 1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전담부서 신설로 △반려견 놀이터 건립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길고양이 표준매뉴얼 구축 △생태 동물원으로 탈바꿈한 전주동물 복지 기준 마련 △동물복지 다들마당의 시민참여 확대 등 동물복지 5개 분야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동물복지과에서는 전주시 동물복지 실태조사와 국내·외 관련 분야 동향파악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 '야호학교', 전통문화예술 협업 프로젝트 가동

국립무형유산원·팔복예술공장·전통문화재단 등과 25일까지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참여자 모집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통문화예술기관들이 손을잡았다.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 팔복예술공장,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예술플랫폼 3개 기관과 협업으로 오는 8월부터 방학과 방과 후, 주말 등을 이용해 야호학교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한 야호학교만의 예술특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자치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전통예술 분야로 확대시킨 이번 특화프로젝트는 △무형유산 계승 프로젝트(국립무형유산원) △예술 비상 프로젝트(팔복예술공장) △청소년 창작 수공예 프로젝트(한국전통문화전당)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야호학교 청소년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 하는 무형 유산 발굴 교육 및 캠프 등의 자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발표회 기회도 갖게 되며 또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목공예와 한지공예 등 수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전통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접수한다.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확인하거나, 전화(063-271-532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개선된 특화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력과 창의성 사고를 펼쳐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응급의료지표 1등급 의료 개선책 효과 '톡톡'

전북대병원, 올 초 시행 전문의 확보·응급외상팀 운영 등

응급의료 개선책을 통해 전북대 학교병원의 응급의료지표가 1등급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응급의료지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병상 포화지수와 재실시간, 중증 응급환자 재실시간, 최종치료제 공률,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진료율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지표가 모두 1등급 수준으로 올라섰다.

병상 포화지수는 보건복지부의 1등급 기준(80%)보다 높은 수준인 67.9%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95.2%)보다 무려 28%나 개선된 수치다.

중증 응급환자 재실 시간도 1등급 기준(5시간)에 근접한 6.3시간으로 지난해(10.2시간)보다 3.9시간이나 단축됐다.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최종치료제 공률도 1등급(87%) 기준을 넘는 95.1%로,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진료율은 1등급 기준(70%)을 뛰어넘는 83.9%로 확인됐

다.

이런 성과는 전북대병원이 응급진료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인력 확충과 진료 프로세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대병원은 올해 초부터 ▲통합 내과 병동 운영 ▲신속한 치료와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의 확보 ▲응급의학과 전문의 초진 시스템 ▲복합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 외상팀 운영 ▲외래환자보다 응급환자 우선의 진료 패러다임 변경 ▲응급환자 담당 의사 호출 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통합 내과 병동 운영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내과 환자를 신속하게 입원, 결정하고 치료하고자 지난 3월부터 27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장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 4명의 인력을 확충했다.

또 기존에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인턴에서 레지던트 및 전문의 체계였지만, 응급

의학과 전문의가 초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전문의 치료율을 높이고 응급지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복합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 7명이 참여하는 응급외상팀 운영도 응급실 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응급환자 담당 의사 호출 시스템을 개선해 1차와 2차 담당의 호출 미확인시 기존 1시간을 30분으로 단축했으며, 3차 담당 의사 호출의 경우 도 도착 확인 시까지 10분 간격으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보다 응급환자를 우선하는 진료패러다임을 변경하고 진료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하루조치를 체계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전 의료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각종 응급의료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2강 '사회적 농업' 교육

전주시가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 이주민 등 사회취약자를 농업에 참여시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농업'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1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정안성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사회적농업 분야 강의를 듣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제2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도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 교수는 '사회적농업의 실천사례

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날 강의에서 △사회적농업의 개념과 역사 △4차산업 사회에서의 치유농업의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참석자들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로부터 '지역 통합돌봄 체계구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커뮤니티케어' 분야에 대해 배우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김남규 전주시의원 '뿌리깊은 나무상' 수상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이 지난달 28일, 2019 전주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 발표회에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부터 '뿌리깊은 나무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김 의원이 지속가능지표 평가위원으로서 '문화분과'와 '경제분과' 등에서 10년 동안 최장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표와 지수개발에 힘쓴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 지역 전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인데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6선의 전주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에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송효철 기자

이경신 전주시의원 의정대상 수상 '영예'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16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로부터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이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열심히 활동하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조성, 시민의 건강과 삶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효철 기자



아름다운 연꽃 1일 전주시 전주역전공원에 연꽃이 개화하기 시작하자 시민들이 연꽃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치매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형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살해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경 남편 시내 자택에서 남편(당시 63)을 둔기로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둔기에 맞아 쓰러진 남편을 약 30여분 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남편은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예전에 남편으

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곧바로 병원에 이송 조치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범행 뒤 8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정신적, 육체적 힘든 상황이 더해져 병세가 더욱 악화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여친과 연락'... 아파트 주민 둔기폭행 40대 검거

여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 10분경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폭행을 저지른 뒤,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날 둔기를 들고 이 아파트를 찾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여자화장실서 '몰카' 사회복지무원 달미

남원시청 사회복지무원이 여직원을 상대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달미가 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원시청 사회복지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경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여직원의 특정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화장실에 한 남성이 자주 드나드는 걸 목격한 직원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원 시청에 근

무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수조관 덮개 훔친 80대 검거

횡집에서 사용 중인 수조관 덮개를 훔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8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8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횡집에서 사용 중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수조관 덮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